

華嚴寺의 「寶物藏置目錄」(註一)

黃 壽 永

智異山에 자리잡은 華嚴寺는 六·二五動亂 前後의 受難을 겪어왔다. 그리하여 寺院 자체가 戰場이 되기도 하였으나 建物等 被害가 輕微하였던 사실은 불행중 다행이었다. 이같이 戰火를 冒免한 處에는 官民의 畝은 守護가 있었을 것이니 오늘 寺刹에 保存된 遺構와 遺物들을 相對하면서 이같은 느낌이 잔잔한바 있었다.

그중 寺刹에서 傳世하는 貴重文書와 佛具等 遺品들은 現在 覺皇殿內에 設置되어 있는 大形 木造藏(註二)(朴柄權將軍寄贈)에 一括 收納되어 있다. 그리고 이 木藏內의 品目에 대하여서는 戰亂이 收拾된 一九五六年 八月二十八日字로 作成된 「寶物藏置目錄」(白紙墨書)이 있는바 그末尾에는 立證人으로 僧俗 十一人의 姓名이 列記되어 있으며 이 目錄은 二通이 만들어져서 「其一 留於本寺 其一 留於法孫」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以下 品目만 列擧한 目錄順序를 따라서 現物을 간단히 설명하여 두겠다(註三)(今年七月十七, 八日)

一、教旨(註四)宜祖大王下賜 一枚 碧巖禪師

教 旨

都摠攝釋覺性南漢山
築城時董率縮徒盡心
完役其有功於國家固大
至爲可嘉爲報恩闡教
圓照四一都大禪師都
摠攝特賜衣鉢者
天啓六年十一月 日

一、禮曹寺格 二枚

第六卷 第九號 通卷六十二號

禮 曹

湖南求禮地智異山
山華嚴寺爲禪宗
大伽藍者
順治七年六月 日
判書 參判 正郎 佐郎

禮 曹

湖南求禮地智異山
大華嚴寺爲禪教
兩宗大伽藍者
康熙四十一年二月 日
判書 參判 參議 正郎 佐郎

一、禮曹弘覺大禪師帖 一枚

禮 曹

扶宗樹教辯智無礙追加弘覺大禪師善修
登階者
天啓二年三月 日
判書 參判 參議 正郎 佐郎

一、兼八道都摠攝帖

兼八道都摠攝
湖南求禮地智異山華
嚴寺爲禪宗大伽藍者
順治七年六月 日
都摠攝 代將

一、禮曹大禪師覺性帖 一枚

禮曹

扶宗樹教行解圓妙悲智雙蓮掃戈無礙大
禪師覺性

天啓二年九月 日

判書 參判 參議 正郎 佐郎

一、仁祖大王下賜御席 一件(繡花紋) (未調査)

一、仁祖大王下賜袈裟 一領(傳真岩禪師) (未調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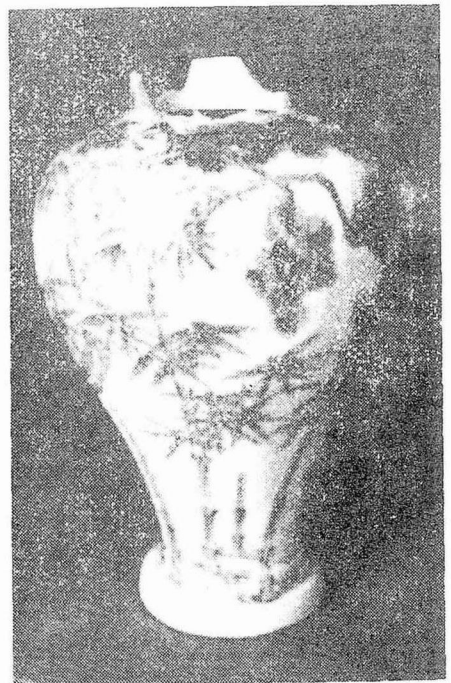
一、仁祖大王下賜御爵 一對 (金銅製、三脚) (高十二cm、線彫蓮花紋) (一色完全、一色小缺)

(一箇에 「무술가례시」라는 點銘이 있음)

一、宣祖大王御筆刻本 一卷 (未調査)

一、宣祖大王下賜西山大師鉢蓋四盒(傳印) 一座

(圓形漆鉢로서 身部に金箔裝飾 파르얌은 圓板蓋가 있어 牧丹畫가 彩色되어 있다. 또 파르銅匙一個가 있다)



一、宣祖大王下賜西山大師袈裟 一領(未調査)

一、宣祖大王下賜西山大師香盒 一件

(金銅製長方形(長11.5cm×幅8cm×厚1.5cm)押型의 方法으로 蓮花水禽 雙鳳이 사겨지고 側面에 唐草線刻文)

一、覺皇殿重建上樑文(註五)蔡彭胤撰 一枚

一、古鐘(寫眞參照) 一座

(高麗無銘小鐘으로서 身部の四分之一이 缺하고 龜裂一線이 있다. 韓國鐘樣式을 具備하여 上下帶는 連珠文帶와 雷紋이며 上帶 위에 立蓮花帶가 둘러 있다. 四乳廓各九乳이며 乳廓下에 重瓣蓮花紋撞

座가 있고 그 사이에 合掌하여 念珠를 들고 있는 坐像各一이 陽刻 되어 있다. 角筒上端에는 珠文이 달리고 龍紐는 오직 後足만이 남

아 있다. 全面에 靑鏽가 덮이고 鍾體는 下向함을 따라 매우 擴大 되고 있다. 日政時 九層庵 舊千佛殿址에서 出土되었다고 傳하는

바 高十五·五cm 上徑七cm 下徑十·五cm 厚一cm의 小品、破片一箇가 파르 있다)

一、磁器 一座

(高麗靑瓷小形盞台 破片으로서 日政時 小銅鐘과 同時出土云)

一、寺蹟元寫本(註六)

檀紀四二八九年 八月二十八日

一冊

立證

朴源應「金海雲」崔永大「金惠江」朴性悟「金漢基」崔道錫「派遣所主任 崔占淑」鄭鍾一「工兵

軍人 許判烈」執筆 金炯嶠 以上

其一 留於本寺

其二 留於法孫

註一、「智異山華嚴寺案內記」貴重品目錄에 의하면 이目錄以外에 (一)磁

器(花瓶)一座 李朝白磁器 (二)華嚴經石刻 約一、五〇〇餘片 丈六

殿遺物 (三)靑蓋瓦二枚라 하였는데 花瓶石刻은 現存하나 靑蓋瓦

는 찾을 수 없었다. 또 同寺에 傳來하던 高麗金字寫經「妙法蓮花

經卷第四」一冊은 現在 行方을 알 수 없다. 筆者는 六・二五直前

此品을 同寺에서 본 바있으므로 그 以後의 일인가 한다(關野貞「朝

鮮藝術之研究續篇」|| 明治四三年 || 에 石經와 더불어 이 寫經卷

四 一冊을 들어 要監督保護라 하였다)

二、이 木槓은 內部에 硝子窓(一部破損)이 끼어있어 物品의 出入이 不

可能한데 이 點은 保存 및 調査를 위하여 再考되어야 한다.

三、이 調査는 文化財專門委員 崔容完氏와 같이 寺刹當局의 協力으로 이루어졌다.

四、이 教旨는 仁祖四年(一六二二)에 該當됨으로 宜祖가 아니라 仁

祖로 보아야겠다.

五、이 上樑文은 考古美術資料集 第六輯「韓國木造建物上樑記文」에 收

錄되었다.

六、이 寺蹟寫本은 考古美術資料集 第七輯「佛國寺、華嚴寺事蹟」에 對

照引用되었다.

(附記) 이 木槓內에는 現在 註一에서 들은 李朝靑華松竹文大臺(寫眞)

(高四十九cm 弘治路이 있을)가 들어 있는바 이것은 오랫동안 覺皇

殿에 傳來하던 것으로 昨年 盜難당하였다가 다시 서울에서 回收된

것이라 한다. 年代도 確實한 優品으로서 保存에 특별한 配慮가 있

어야 할 것이다. 또 華嚴石經片 合計五箇가 이 槓內 또는 本尊 앞經

床위에 保存되어 있다.

第六卷 第九號

通卷六十二號

華嚴石經 調查整理 畧報

鄭 明 鎬
申 榮 勳

華嚴寺補修工事의 一環으로 覺皇殿의 華嚴石經을 一九六一年九月八日 부터 十月六일까지 二十九日間 調查整理하였다.

覺皇殿 石燈 補修工事 黃壽永監督官 指揮下에 東國大學校 禹貞相教授와 文化財保存委員會 秦弘燮幹事의 協助를 얻어 調査員 鄭明鎬와 申榮勳이 擔當하였는바 이때 覺皇殿 醜瓦工事監督官 林泉氏와 長韓建設社長 鄭復永氏의 커다란 協력이 있었다.

一、整理目的

日帝末 覺皇殿 解體修理의 一環으로 樞本社人氏가 中心이 되어 石經을 整理한바 있었다. 其後 分類包裝되었던 石經片이 六・二五動亂 前後의 被害로 箱子가 破損되고 現品이 露出堆積되어 그中 一部가 逸散되어가는 일도 생겨 더이상 放置하여둘 수 없는 狀態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再整理 包裝하여 장차 완전히 조사 정리될날까지 安全保存方策을 講究하기로 하였다.

二、整理前의 狀態

覺皇殿 佛壁 뒷쪽 공터에 佛壁 쪽으로 나무 시렁을 여섯개 짚고 그곳에 石片을 포장한 箱子를 쌓았다. 시렁을 보고 서서 오른편부터 第一號라 고한다면 第六號까지가 現存하고 있는 것이나 第二・六號를 除外한 네 개의 시렁에는 刻적이 제대로 남아있지 않았다.

箱子를 두가지로 나누어 만들고 그에 따라 番號도 따로 썼는데 그 하나는 番號앞에 「大」字를 썼고 다른 하나는 아무런 표식없이 一連番號만을 記入하였다.

箱子는 번호에 따라 차례로 쌓였었음을 데지만 지금은 뒤죽박죽이 되어